

## 한국여성소설에 나타난 ‘수치’와 주체 양상\*

—강신재 · 박완서 · 오정희의 작품을 중심으로

김 세 나\*\*

### 요약

이 연구는 한국 여성 소설에 나타난 ‘수치’를 분석하여, 한국 문학에서 주체의 의미를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전쟁 전후로 유·성년기를 보낸 여성 작가들은 공통적으로 수치심이 발현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주체적 자리를 확인하는 인물들의 자의식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전쟁이 주체성의 형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통상적인 해석을 넘어 텍스트를 보다 섬세하게 바라보면서 수치심의 발현과 그에 따른 다양한 양상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전쟁 이후 서양을 타자로 한 한국 사회는 주체의 결핍 혹은 열등감을 형성하는데 이때 발현되는 수치심의 양상들은 주체 구성에 내면화되는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근대성으로 명명할 수 있는 서양이라는 타자와의 연속성 내지 단절을 반복적으로 겪으며, 주체는 무의식적으로 수치심의 감정을 내면화하게 된다. 수치심의 발현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한정된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접근하면서, 전회와 승화의 가능성을 지닌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강신재, 박완서, 오정희의 작품에 나타난 주체의 수치심은 사회적이며 타자 의존적인 감정이자, 정서적 소통의 맥락 속에 위치한 자기 통제의 대상으로 이해된다.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삶의 지속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에 끊임없는 의문을 품게 되고, 이때 수치심이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들은 타자를 동경하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분열적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이 느끼는 수치심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포와 불안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위장된 태도로 수치심을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088847).

\*\* 군산대학교 기초교양학부 초빙교수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면을 쓴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서도 주체성 형성과 수치심의 상관관계를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수치심은 개인의 내밀한 감정에 한정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며, 사회 문화적, 역사적 환경 속에서 집단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전쟁 이후의 근대화 과정은 무엇보다도 서양, 미국이라는 타자로부터 파생된 타자화 과정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때 수치심의 감정은 주체의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수치심, 한국전쟁, 주체, 정체성, 시선, 응시, 공포와 불안

목차

1. 감성적 지표로서의 '수치'와 주체의 출현
2. 가난의 정동과 폭력적 시선으로부터의 탈주
3. 타자와의 불연속성과 수치심의 무대화
4. 공포의 일상과 수치심의 내면화 과정
5. 수치심으로 드러난 주체의 의의

## 1. 감성적 지표로서의 '수치'와 주체의 출현

한국 문학에 나타난 주체성은 이성중심주의의 근대적 주체성에 큰 빛을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6·25전쟁 이후의 산업화와 경제 개발화의 거대한 풍속도를 지나오며 현대 문학의 계보 역시 서구 중심의 이성중심주의적 주체 개념이 그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필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학사를 연구하는 시각에서도 확인 가능한 바, 근대적 주체 개념 자체가 이미 남성 중심의 사고, 서양 중심적 사고의 기틀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sup>1)</sup> 먼저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이 '객관 현실

1) 근대의 소설 경향을 파악하는데 있어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큰 범주의 두 개념향이 한 시대의 소설사 진개를 개괄하는데 유용한 체계임을 인정하면서도 포괄할 수 없는 많은 의미를

의 토대와 상부구조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자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자연스럽게 이의 이성중심주의에 맞서는 경향의 모더니즘 계열이 확산된 것이다.<sup>2)</sup>

이때 근대성, 즉 모더니티의 서양중심주의 사고에 기반한 경향은 이성중심주의에 대항하는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류나 다층적인 차이들을 거르거나 배제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문제점을 낳는다. 우리의 근대사가 '근대에 대한 특수성'<sup>3)</sup>으로 일갈할 수 있는 국권 상실, 한국 전쟁 등의 사회현상으로부터 전혀 무관하지 않듯이 한국 문학의 주체성은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영향 받아 이성중심의 주체 형성에 더욱 견고한 성을 쌓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산업화 시기를 거쳐 자본주의 체제를 국가 시스템의 목표로 지향해온 우리 사회에서 그에 따른 문제들을 들춰낸 미시적인 접근이 이어지게 된다. 개인적 체험이 중요하게 부상하고 하위 계층으로 분류되고 소외되던 여성에 대한 인식이 확장하면서 그녀들의 삶을 보편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작품과 연구 성과들은 동시적으로 확산된 바 있다. 여기에 페미니즘 관점이 도입되어 여성적 주체성에 주목한 시도 또한 기존의 근대성 담론체계의 외연을 넓히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중층적인 연구 성과들을 살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혹은 남성 중심주의의 사고로 이분한 접근은 새로운 담론체계를 형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학 자체의 내적 효용

놓치는 문제점 역시 지적하고 있다.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174면 참고.

- 2) 경향소설이 등장하면서 현실과 구조를 통합하려는 리얼리즘 소설이 본격 대두되고 분화되는데,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미성숙한 자본주의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 종래의 이성 중심주의에 맞서는 새로움을 향한 정신 등이 등장하고 그 핵심을 모더니티 지향성으로 명명할 수 있다. 위의 책, 174-238면 참조.
- 3) 근대 문학은 시민계층의 욕망의 전개 양상이 표출방식에 관계되는데 이를 근대에 대한 보편성으로 볼 수 있다면, 일제 침략으로 말미암은 국권상실에 대항한 반제투쟁과 반봉건투쟁이 우리의 근대에 대한 특수성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김윤식, 「한국근현대문학사를 다시 써야 되는 까닭」, 『한국현대문학사』, 김윤식·김우중 외 34인, 현대문학, 1989, 15-16면 참조.

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전후 대표 여성작가들인 강신재, 박완서, 오정희의 작품에 나타난 ‘수치(羞恥)’의 양상을 살피고 주체형성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수치심의 정동이 주체성 구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미시적 접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대상을 주체화시키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4)</sup> 수치심의 감각은 주체를 주조하는 필연적 과정임을 전제해야만 일상의 감성적 차원의 지표들을 정치하게 바라보게 되는 지점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수치심은 주체가 외부의 타자를 전적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형성되는 감정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해는 사회학적인 접근일 뿐 진정 수치심이 발생하는 과정과 그로부터 형성되는 주체의 자리를 파악하지 못한다. 더불어 문학 작품에서 수치심은 여성의 전유물과도 같은 감정으로 종종 표현되기도 한다. 자신의 언어로 직접 ‘수치’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관찰자, 제3자의 시선을 통해 수치심에 빠진 상황이 묘사되곤 하는 것이다. 여성 주체가 우울과 히스테리적 증상에 놓였을 때 발현되는 감정으로서 수치심은 발현되며 한정된 의미로 제한해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주를 이뤄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치심과 관련된 연구시각 역시 ‘육체’에 한정되어 왔던 것으로 이해된다.<sup>5)</sup> 신체의 성적 부분이 노출되는데서 오는 수치심에 주목하여

4) 정치한 연구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바 이들은 수치심의 성격을 규명하고 대상에 대해 갖는 주체의 감정에 주목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본고는 수치심의 발현 이후에 형성되는 주체성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연구들과 시각차가 있음을 밝힌다. 대표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서영재, 「이청준의 소설에 나타난 가난과 부끄러움의 윤리성-「키 작은 자유인」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2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6, 김민옥, 「누스 바움의 감정철학으로 바라본 오정희의 「유년의 뜰」, 『영주어문학회지』 40권, 영주어문학회, 2018, 김윤정, 「박완서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 혐오 연구-『살아 있는 날의 시작』과 「친절한 복희씨」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82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9, 우현주, 「박완서 전쟁 체험 소설의 반복과 차이」, 『여성문학연구』 제4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자신의 신체를 누군가 관찰대상으로서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겪게 되는 감정의 역사적·문화적 변이 양상을 대상으로 삼는다.<sup>6)</sup> 즉 자신을 주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사물 혹은 대상으로 전락한 것처럼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수치심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신체가 절대적으로 타자화될 때 수치심의 대표적인 경험으로 인지하는 것 역시 이와 관련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치의 감정은 단지 신체에만 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치심, 즉 부끄러움에 휩싸인 상황은 주체를 세계 안과 밖 어느 곳에도 위치시킬 수 없는 순간으로 이동시키는 특수한 감정의 지표라 명명할 수 있다. 수치심의 순간 주체는 응시의 경험을 겪는다. 외부의 어떤 대상이나 타자로 지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걸려 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응시의 순간에 놓이는데 이를 '감정적 지표들'로 느끼게 된다. 가령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냄새 맡을 수 있지만 규정된 대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며 '감성적 형식의 외양'으로 수치의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칭할 수 없는 대타자의 응시와 만나게 되는 것은 오직 감성적 지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sup>7)</sup> 그리하여 여성의 고유 감정으로 자주 언급되며 한계로 이해되던 '일상성 속의 여성적

5) 수치심의 역사를 거시적으로 살핀 장 클로드 볼로뉴는 신체에 관한 수치심과 감정에 대한 수치심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육체에 대한 수치심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함을 밝히고 있다. 장 클로드 볼로뉴, 전해정 옮김, 『수치심의 역사』, 에디터, 2008, 14면 참조.

6) 서양의 관찰자(인종학자)가 원시부족 여성들의 몸을 대상으로 기록한 사진을 보면, 여인들은 심한 수치심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찍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때로는 수치심을 견디는 특별한 응시행위로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신들의 모습이 (타인에게) '사로잡혀' 관찰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수치심이 발생하게 된다. 한스 페터 뒤르, 차경아 옮김, 『나체와 수치의 역사』, 까치글방, 1998, 135-136면 참조.

7) 조운 콕젝에 따르면 응시를 표출하는 감성적 형식은 규정된 대상을 지시대상으로 갖는 감각이 아니다. 셔터를 통해 엿보는 한 쌍의 눈, 나뭇가지의 바스락거림, 발자국소리와 같은 대상들에서 응시를 만나게 된다. 우리는 응시 경험을 통해 '저기 누군가 있다'가 아닌 '나는 취약하다, 나는 상처받을 수 있는 신체가 있다'는 인지 경험을 하게 된다. 조운 콕젝, 김소연 외 옮김, 『여자가 없다고 상상해봐-윤리와 승화』, 도서출판b, 2015, 345-346면 참고.

정동'은 오히려 수치심을 통해 주체의 출현을 나타내는 지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본문에서는 강신재(1924-2001), 박완서(1931-2011), 오정희(1947-)의 작품을 대상으로 수치심이 발견되는 감성적 지표의 특징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타인으로부터의 응시의 경험, 그로부터 파생되는 불안과 공포의 감각, 움직일 수 없는 정지상태의 육체를 체감하는 수치심의 정동들은 한국 전쟁 직후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감각적 체험들이다. 세 작가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타자를 향한 강한 동경 내지 거부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공통적으로 '미국 문화'로 통칭할 수 있는 근대적 체험에서 비롯되고 있다. 수치심이 발생하는 동시에 주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이상과 같은 정동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가난의 정동과 폭력적 시선으로부터의 탈주

전후 각지의 이방인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했고 서울의 남산 해방촌은 현재 가장 대표적인 피난민들의 정착지로 자리매김 된 장소이다. 「해방촌 가는 길」(1957)은 새롭게 재질서화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초기의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의 불안한 생활을 포착하고 있다. 과거의 해방촌은 직업여성, 제대 군인, 아직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떨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로를 경계하고 진심을 전하려 하지 않는 기이한 생활 태도를 묘사하게 된다.

가난이 일상이 된 현실 속에서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취직 자리를 얻는 것뿐이다. 이는 전쟁 전 유복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선택지가 없는 일이다. 전쟁은 모두를 평등한 자리로 위치시키고 새로운 시작점을 그 앞에 열어 보인 제로상태의 장이다. 전근대적 가족 제도의 가장

역할을 맡았던 아버지가 부재하자 곳곳에서 고아와 새로운 가장자리를 떠맡게 된 소년·소녀들이 즐비한 상황이다. 기애 역시 이들과 같은 현실에 놓여 서울에서 대구로 취직을 떠나게 된다.

미군 부대에 취직하면서도 자기의 신념을 잃지 않던 모습을 보이던 그녀는 한순간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신을 내모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가난하더라도 몇몇한 생활을 유지하는 일을 신조로 여기며 생활해 오던 차 모든 일이 덧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며 자기 자신의 맨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제비’

‘미스 제비.’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이고 그리고 그것은 취직 이래 하루같이 입고 다니는 자기의 곤색 옷에 연유하는 별명이라고 알았을 때 기애는 부끄러움으로 사지가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다. 부지런히 빨아 다니는 흰 블라우스와 함께 내리 석 달은 입어 온 기애의 진곤색 슈트는 부대 내에서 바야흐로 명물로 화해가고 있는 것이었다. 기애의 자존심은 분쇄되었다. ‘친구를 만들지 않고, 그래서 초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도 자랑이 될 수 없는 세계가 거기 있었다. 검소는 곧 무교양과 연결되었다. 그것은 건드릴 수 없는 일이었다.’<sup>8)</sup>

검소가 몸에 밴 그녀는 단벌의 옷으로 석 달을 지내왔다. 성실히 모은 봉급은 매달 해방촌의 가족에게 송금하며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고 생활하던 차 ‘제비’라는 별명으로 사람들의 눈과 입에 오르고 내리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데 단지 타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검소한 품행이 곧 ‘무

8) 강신재, 「해방촌 가는 길」, 김은하 엮음, 『강신재 소설 선집』, 현대문학, 2013, 223면. 이하 인용시 페이지만 표기함.

교양이 되는 새로운 전후의 세계관에 자신이 부합하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이는 새롭게 개편되는 전후의 세계인식이라는 타자의 시선에 자신이 부적합한 존재임을, 즉 '낡고 완고한 종래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임을 깨닫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기애는 종래의 것을 모두 벗어던지고 새로운 질서에 맞게끔 자신의 몸가짐을 달리하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미군 문화에 동화되어가면서 군인인 조오와 연애도 시작하고 새로운 '내일'도 희망해보지만 현실은 다시 '해방촌'으로 돌아가는 방법뿐이다. 결국 대구에서의 동서생활은 조오가 자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비현실적 시간 경험으로 남게 되고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기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해방촌의 집은 더욱 불편한 응시로 기애의 마음을 움아매고 있다. 응시란 대상이 되돌려 보낸 시선으로 느끼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신을 뻔히 바라다보는 눈길인 시선과 응시는 분명 다른 감각으로 다가오는데, 자신의 정체를 명확히 깨닫게 되는 경우는 바로 응시를 통해서이다.

어머니 장씨는 기별 없던 딸의 귀향에 복잡한 심리상태를 보인다. 직접 연유를 묻지 못하고 자꾸만 혼자 상상하며 기애의 낮빛을 살필 뿐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와 같은 어머니의 태도에 기애는 더욱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그러한 장씨에게 기애는 무엇인지 비굴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묘하게 돌아가는 일이었다. 장씨 자신 돈은 반값고 귀하면서 돈이 되는 그 물건에는 떳떳치 못한 것을 뉘우치듯이 딸에 대하여도 기특하고 고마운 반면에는 낙담이 되고 꺼려하는 무엇이 없지 않았다. 장씨의 이런 기분은 또 그냥 기애에게 반영되고 그러니까 장씨에게 느끼는 무엇인지 비굴한 그 느낌은 곧 기애 스스로에게 느끼는 비굴감이기도 하였다.(230면, 밑줄-인용자)



자신의 행색을 보고도 직접 어떤 일을 하면서 생활해왔는지 어머니는 묻지 않는다. 충분히 짐작 가능한 상황임에도 서로에게 금기어처럼 지난 시간을 입 밖에 꺼내지 않는 상황이다. 이때 장씨가 딸에게 보내는 눈빛은 '가정된 시선'이라 할 수 있다. 나를 타자가 '어떠하다'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저 스스로 여기고 느끼는 시선인 것이다. 기애는 어머니의 시선으로부터 하나의 맹점<sup>9)</sup>을 발견한 것과 같다. 즉 그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가공의 대상을 보는 일로 어머니의 전근대적 시선으로서 다시 나를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장씨 역시 항상 모호한 태도로 딸을 대하고 있다. 그녀가 송금해온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돈의 출처에 대해서 짐작만 할 뿐 묻지 못한다. 딸의 행색을 보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남의 눈과 입 밖에 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 기원할 뿐이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이중성으로 인해 기애는 그녀에게 '비굴감'을 느끼고 이내 제 스스로에게 느끼는 비굴감 즉 수치심이 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보는, 별거벗은 나를 보고 있는<sup>10)</sup> 듯한 어머니의 비굴한 태도를 대할 때마다 나는 주체의 자리에 위치되곤 한다. 가난의 상황을 벗어날 현실적 방안을 찾아보려 해방촌을 탈출하다시피 떠나갔지만 다시 빈 몸으로 갈 곳 없이 되돌아오게 된 것이다.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하나의 빛으로 느끼는 나에게 어머니는 비현실적인 대안책을 제시할 뿐이다. 전쟁 이전에는 번듯한 양반가의 자제였지만 현재는 고아에 불구의 몸을 지닌 근수와 의 결혼을 은근히 바라는 눈치를 내비친다. 기애와 근수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서로를

9) 차크 라캉에 따르면 응시의 순간 맹점이 출현한다. 내가 바라보는 그림이 다시 시선을 되돌려 보내는 느낌의 '되응시'가 일게 되는데 이를 맹점으로 표현한다. 슬라보예 지젝, 조형준 옮김, 『라캉 레스토랑』, 새물결, 2013, 1228면.

10) 응시는 사회적 장에서 수치심으로 기입된다. 응시를 통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이는 곧 자아 이상의 단계에 이른 주체의 모습을 확보하게 된다. 슬라보예 지젝, 조형준 옮김, 『라캉 레스토랑』, 새물결, 2013, 1240면.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각기 다른 감정의 결과로 나아가게 된다. 그녀와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고백을 전하는 근수에게 기애는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다. 근수를 대하는 일은 과거와 다른 현재의 자신을 더욱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를 대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240면)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제로 작용하게 되어 매몰차게 응대하게 만들 뿐이다.

그렇다면 가장으로서의 책무이자 굴욕감을 자아내는 죄악인 가난을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기애는 어떤 주체적 포즈를 취하게 되는가. 기애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치심의 감정으로부터 탈주를 감행한다. 하지만 이는 희망적 내일을 건설할 수 없는 대안책으로 나타난다. 어디에도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는 전근대적 질서에 익숙한 어머니는 매일 같이 집을 비우고 기도할 곳을 찾아 헤맨다. 자라나는 동생 옥이 또한 아직 미성숙하고 가족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소년일 뿐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두 혈육을 떨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미래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찾고 있다.

문마다 뺨금뺨금 내다보는 까만 눈들을 곁으로 흘리면서 총총히 들어앉은 판잣집 옆을 지나쳤다. (...)해방촌의 주민들이 그 길을 따라 돌아오고 있다. 그것은 멀리서 바라보면 일렬의 길고 가는 행렬이 서서히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동행끼리는 열을 올려 사암 이야기, 장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파고드는 듯한 눈길, 여자고 남자고 힘찬 걸음걸이. 거친 호흡. 똑같이 표정이 어느 몸에나 있었다. 기애는 자기도 그 길로 들어서서 반대쪽으로 거슬러 내려갔다.(233면)

해방촌 골목을 나서면 기애는 곳곳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을 느낄 수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까만' 눈으로 그녀를 뺨히 내다보고 있다. 직접 말을 걸거나 이는 체를 하는 사람은 누구 하나 없지만 오히려 침묵의

눈으로 더욱 많은 발화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상황이다. 단순히 마을 골목에서만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곳 해방촌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에는 '파고드는 듯한' 눈길을 느끼고 있다. 이는 마치 '얼굴을 후려치고, 결길로 새게 하는'<sup>11)</sup> 정동을 낳는다. 해방촌은 나에게 끊임없이 응시를 보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하나의 결단을 낳는다. 기에는 응시로부터 충동적으로 하나의 결단을 내린다. 곧 해방촌 사람들이 오는 길목에서 정 반대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다.

해방촌으로부터 탈주를 감행하게 된 기에는 결국 이전의 선택과 다른 없는 길로 향하고 있다. 해방촌 사람들로부터 반대쪽으로 거슬러 내려간 발걸음은 용산에 있는 미군장교 구락부 앞에 당도한다. '목소리가 되지 않는 목소리'(239면)로 그녀와의 결혼 생각을 비쳤지만 자신의 과거를 그가 모르기 때문에 행한 오판이라 여긴 기에는 냉정한 태도로 근수를 보낸다. 얼마 후 한 청년의 염세 자살 기사를 접하고 필히 그임을 직감한 그녀는 충동적인 모습으로, 그러나 이미 탈주의 정착지는 이곳뿐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용산의 미군 장교 구락부에 곧장 나선 것이다. 미군인 하리이와의 색다른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혈색도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지만 불현듯 엄습하는 불안감은 감출 수가 없다. "도적으로부터 못한 녀석들로부터 그리고 꼬부랑 할머니들 눈과 입으로부터"(243면) 도망하듯 탈주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의 도피처일 뿐인 것이다. 언제든지 팽개쳐질 수 있는 '생활'에의 직감은 주체의 자리를 환기한다. 나를 수치심과 굴욕감에 빠뜨리는 응시를 피하려 한 선택은 오히려 주체의 자리를 갖지 못한 결과임을 나타내고 있다.

11) 응시는 주체를 꼼짝 못하게 하는 효과를 일으킨다. 곧 메두사처럼 돌로 굳어버린 존재자로 변형시키기도 하는 것인데 기에 역시 해방촌에서 매순간 응시의 경험을 겪고 있다. 슬라보예 지젝, 조형준 옮김, 『라캉 레스토랑』, 새물결, 2013, 1239-1240면 참고.

### 3. 타자와의 불연속성과 수치심의 무대화

박완서는 등단작 『나목』을 통해 한국 전후의 서울을 배경으로 하여 생존과 이상 사이에서 고뇌하는 여성 주체를 제시한 바 있다. 황폐화된 도시 서울에서 새롭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젊은 나이에 가장이 된 이경 역시 PX 내 초상화부에서 미군들의 애인을 초상화로 그려 파는 일의 중계를 맡았다. 잠에 들 때조차도 떠오르는 사람들인 ‘환쟁이들, 최 사장, 어머니, 다이아나 김, 린다 조’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전쟁 전과는 다른 형태의 직업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이어나가게 된다.

이렇게 전후의 서울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에게는 과거의 영화로웠던 기억을 상기시키는 고통의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떻게든 각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모두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때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타자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 타자란 주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구성되는 대타향으로서 한국 전쟁 이후 유입된 미국 문화와 새로운 규범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경이 취직한 곳 역시 미군 문화가 유입되는 ‘PX’<sup>12)</sup>라는 점에서 새로운 타자의 모습이 자주 출현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 1) 갑자기 환한 조명 속에 펼쳐진 건너편 미국 물품 매장 쪽을 나는 마

12) 박완서 소설에 재현된 미군 PX 경험과 그 세부 공간에 주목한 연구로 신수정과 나보령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PX가 미국적인 것에 대한 객관적 통찰의 근원이 되는 장소로서 문 안과 밖으로 구분 지어왔던 서울의 전통적 공간 질서의 해체와 재편의 의미 확장을 다루고 있다. 신수정, 「박완서 소설과 전시 여성 가장의 미군 PX 경험」,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7집2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나보령, 「허물어진 ‘문 안’: 박완서의 『나목』을 통해 본 한국전쟁과 서울의 공간적 재편」,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9권4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치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듯 설레는, 좀 황홀하기조차 한 기분으로 바라봤다.

언제 보아도 싫지 않은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의 화사하고 매력적인 상품들, 그 풍요한 상품들을 후광처럼 등지고 서서 저녁 화장에 여념이 없는 세일즈걸들. 나는 이런 것들 바라보기를 즐겼다.<sup>13)</sup>

2) 술한 얼굴, 얼굴들. 이국의 아가씨들은 한 번도 전쟁이 머리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일까. 그들진 데가 조금도 없어서 오히려 인간적이 아닌, 동물이라기보다는 화사한 식물에 가까운, 만개한 꽃 같은 표정들이었다.(31면)

인용문1)은 나의 시야에 들어온 PX 내부의 풍경이다. 언제보아도 싫지 않은 화려한 볼거리는 이국적이며 다양한 색깔으로 감지되는 세계이다. 그런데 나는 상연되는 무대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객석에 앉아 무대 위를 바라보는 듯한 태도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 인용문2)는 이경이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건네받은 미국 여성들의 사진을 마주하는 장면이다. 이들의 얼굴 표정에서는 인간적이라 할 수 있는 슬픔, 고통, 비애의 그늘을 찾아보기 어렵다. '화사한 식물'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띠는 사진 속에서 그녀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현실을 반영하게 된다. 이처럼 나를 둘러싼 세계는 화려하며 부(富)가 흘러넘치는 세계로 이상적인 환상이 무대화되는 장소로 재현된다. 하지만 이경은 타자화된 세계에 직접 참여하거나 동화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타자를 재현하고 모방하는 도시의 풍경에서 불연속적인 체험을 겪기 때문이다. '밝고 흥청대는' 거리를 활보하면서 쇼윈도의 마네킹을 '선망하고', 장난감 침팬지의 재롱에 나는 '마음껏 소리 내어 키득대기도' 한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망상'을 불러내는 어두운 골목이 튀어나올 때마다 뿔박질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때 나는 외부에 누군가가 보고

13) 박완서, 『나무』, 세계사, 2012, 17면. 이하 인용 시 페이지만 표기함.

있다는 ‘가시성’의 느낌을 받는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응시는 ‘나의 세계에서 만나지만 나의 세계 속 어떤 대상에도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초재적인 지위<sup>14)</sup>를 지닌다. 이는 불시에 나를 엄습하고, 불시에 나를 기습하여 수치심에 빠뜨리는 바, 직접 대면하지 않지만 오히려 타인의 현존 그 자체<sup>15)</sup>를 느끼는 정동이다. 이내 세계의 중심에 나를 상징하지 못하게 되면 불안이 엄습한다. 나를 둘러싼 외부세계는 미국이라는 타자의 문물이 환상처럼 펼쳐진 곳이다. 동시에 아직 회복되지 못한 골목 사이를 지날 때마다 마치 보고 있던 무대 위의 불빛이 소등된 것과도 같은 단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모방할 타자의 재현이 사라질 때마다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전쟁의 상처, 떠오르는 기억들을 회피하고자 땀박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경은 아직 온전히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단계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즉 ‘남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타자와의 차이에 직면하여 자기 자신을 견주는 활동은 주체의 자기 관계를 낳는 조건<sup>16)</sup>이 된다. 주체는 끊임없이 타자와 견주고 차이를 확인하면서 자기 모습을 포착하려는 활동의 반복 속에서 출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치심은 한정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 나의 시야에 들

14) 사르트르가 시각장과 응시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한 ‘초재적(transcendent)’이란 용어는 현실의 내 세계에서 만나지만, 나의 세계 어느 대상에도 부착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라캉은 이를 ‘실패한 조우’라 명명한 바 있다. 조운 콕젝, 앞의 책, 344면.

15) 자크 라캉은 응시가 가시화의 영역에 있다고 말한다. 사르트르의 시각장 이론을 살펴보면 ‘수치심이 발현될 때 응시의 순간 아래에 있게 되며 우리는 타인의 현존 그 자체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자크 라캉, 자크-알랭 밀레 편, 맹정현·이수련 옮김, 『자크 라캉 세미나11-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개념』, 새물결, 2008, 132-134면 참조.

16) 주체는 타자와 끊임없이 견주고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을 포착하고 알아내려 하는 활동 안에서의 진자운동에서 출현한다. 이는 서양과의 상징적 동일시를 이룰 수 없는 주체의 조건을 지시한다. 주체가 서 있는 자리는 타자와의 차이 위이며, 그 차이를 통해서만 주체의 자기 관계를 성취할 수 있다. 김미정, 『수치(shame)와 근대』, 『사회와 이론』 통권 제21-1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12, 159-160면 참조.

어오는 모든 대상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복기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며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서울의 밤거리를 배회하는 일을 반복하게 만든다.

드디어 나는 다시 어둠 속에 섰다. 한쪽에 부연 하늘을 이고 검게 치솟은 성당 건물이 보였다.

무엇이든 기구하고픈 충동으로 나는 발을 멈추었다. 그러나 무엇을 소망해야 할지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마리아 당신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기나 하리까.'(중략) 문득 나는 내가 전에 애송한 시의 구절을 생각해내려고 골몰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남의 흉내, 빌려온 느낌은 그것을 깨닫자 흥을 잃고 싱거워졌다. 그리고 가식 없는 나의 것만이 남았다. 그것은 무섭다는 생각과 춥다는 생각뿐이었다.(밀줄-인용자, 36-37면)

환등상처럼 펼쳐지는 명동을 배회하다보면 무의식적으로 바라본 사물의 연상되는 대상이 떠오르게 된다. 한 성당 건물을 마주한 나는 형식적으로 바라야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릴케의 시 '마리아에게 드리는 소녀의 기도'<sup>17)</sup>의 한 구절을 읊조리는데 이내 '남의 흉내, 빌려온 느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동경'<sup>18)</sup>의 타자인 서양적인 것을 지우고 나면 '가식 없는 나'만의 감정만 남게 된다. 즉 가장 내밀한 나 자신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둘러싼 평범한 현실과 외부의 대상들은 어느 순간 낯선 느낌을 일으키고 무언가에 압도당한 기분<sup>19)</sup>으로 감지된다. 이때의 나는 '무섭다', '춥다'는 감각으로 수치의 정동을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수치심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다. '수치심은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

17) R.M. 릴케, 구기성 옮김, 『릴케 시선』, 을유문화사, 1995, 50-52면.

18) 이경은 떠오르지 않았던 시의 나머지 구절을 다시 성당의 첨탑에 마주하게 되면서 상기하게 된다. '마리아, 당신만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셔야 해요. 당신의 핏줄로 태어난 우리울시다. 동경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가를 당신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기나 하오리까.'(168-169면).

19) 다리안 리더, 박소현 역, 『모나리자 훑치기』, 새물결, 2010, 94면 참조.

는 존재 안으로의 도주이며 타자와의 새로운 사회적 결속의 여지가 열려 있음을 함축하는 감정<sup>20)</sup>이다. 그리하여 수치의 감정에 놓인 주체는 추상적 존재자로 자신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성, 개별성의 주체로 자신을 인지할 수 있다. 즉 수치심의 감정은 인격적 존재로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sup>21)</sup>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을 마음에 두고 갈등하는 상황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경은 스스로도 ‘서로 용납될 수 없는 이 두 가지 절실한 소망’이 공존하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이상적 동경의 대상인 옥희도와 현실적 대상인 태수를 마음에서 견주면서 어떠한 선택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매일 밤 충동적으로 ‘침팬지의 춤사위’를 보고자 하는 일 역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대상화하며 재현해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기도 하다.

그동안에도 안 돌아보면 오늘 밤 침팬지 앞에는 안 가리라고.

어쩔 나는 그런 소중한 걸 걸고 만 것일까? 침팬지 앞에서의 그 고마운 해후, 그리고 어두운 산책길에서의 그의 숨막히는 열기, 그 열기에의 무분별한 이끌림과, 두렵디두려운 망설임. 이런 소중한 것들을 걸고 나는 셈을 세었다. 아까보다 느리게 셈을 세었다. (190면)

옥희도 씨와의 밤 산책은 두렵고 설레는 기분을 준다. 변화한 명동 일대를 배회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목을 끄는 침팬지 인형은 나에게 한편으로는 위안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을 전해주는 대상이다. ‘동경’과 ‘숙

20) Joan Copjec, “May ‘68, The Emotional Month,” *Lacan: The Silent Partners*, ed. Slavoj Žižek, New York: Verso, 2006, pp. 106-111. 박재철, 「상표화된 이미지와 이미지적 세계 ‘사이’에서」, 『비교문학』 제69집, 한국비교문학회, 2016, 130면 재인용.

21) 자아 정체성의 관점에서 수치는 죄의 감정보다 더 기본적인 감정에 속한다. 인간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주며 인격의 내밀한 정황을 알려 주는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 수치가 결여된 상태는 오히려 ‘비인간적인 심리적 사태를 수반하는바 인격적 존재의 표현 가능성으로 수치를 정의할 수 있다. 임홍빈, 『수치심과 죄책감-감정론의 한 시도』, 바다출판사, 2013, 373면 참조.



명' 사이에서, 즉 옥희도와 태수 사이에서 나의 정체성이 찢기는 기분을 느끼면서도 어떤 선택도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반복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재차 묻는 과정으로서 침팬지 인형의 춤사위가 보고 싶은 것이다. 이내 '차차 동작이 느려지며 허탈로 돌아가는 모습'을 직시하며 '사이'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춤사위의 열기가 사그라들면 곧 수치심이 밀려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욕망의 상승과 소멸의 순환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경이 겪는 수치심은 욕망이 발생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의 지표라 볼 수 있다. 우리가 정체성을 정립하는 과정은 끊임없는 타자와의 견줄이 필요하다. 이경 역시 타자를 찾는 과정에서부터 수치심이 발생하고 있다. 누군가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심리상태를 원하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는 분열적 모습이 공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후의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수치심이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단절이 필요하듯, 과거로부터 절연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발생하게 된다.

#### 4. 공포의 일상과 수치심의 내면화 과정

오정희 역시 한국 전쟁에 유년기를 보낸 작가이다. 전후의 풍경에 대한 작가의 예리한 시선은 「유년의 뜰」(1980)의 어린 화자 노랑눈이를 통해서, 그리고 연작으로 봐도 무방한 「중국인 거리」(1979)의 '나'의 시선을 통해 확장되어 나타난다. 작가는 선과 악, 행복과 불행처럼 단순히 이분법으로 구분되지 않는 암울하고 착잡한 세계<sup>22)</sup>를 그려내는데, 무엇보다도 어린 화자의 시선에서 전쟁의 현실이 포착되기 때문에 세계는 더욱 비루

22) 오생근, 「허구적 삶과 비판적 인식-오정희 작품론」, 『오정희 깊이 읽기』, 우찬재 외, 문학과 지성사, 2007, 172-173면.

하고 날선 풍경으로 다가오게 된다.

「유년의 뜰」은 전쟁으로 인해 끌려간 아버지가 부재하는 1년여의 시간 동안, 노랑눈이 가족의 생활상을 그리고 있다. 나는 트럭에 실려 간 아버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며 날로 희미하고 멀어져가는 얼굴을 떠올리기 위해 함께 했던 거리를 배회하며 시간을 보낸다. 남은 가족들은 그의 행방을 예닐곱 차례 수소문했지만 헛 행보를 한 뒤로 드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직 채 자라지 못한 오빠가 아버지의 역할을 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막 변성기에 접어든 미성숙한 소년인 큰 오빠는 아직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생활을 위해 밤마다 분을 바르고 나가는 어머니와 기묘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려는 여동생을 폭력으로 통제한다. 그런데 억압적 모습이 지속될수록 도리어 자신이 놓인 무능한 상태가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자타로 떠맡게 된 역할이 자신보다 더 큰 옷인 양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빠의 매질은 무서웠다. 오빠는 작은 폭군이였다. 아버지가 떠난 이래 부쩍부쩍 자라는 오빠의 몸이 어느결엔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웠다. 어머니가 읍내 밥집에 나가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수상쩍은 외박이 잦아지자 오빠는 암암리에 아버지의 위치를 수락하였음을, 공공연히 자행되는 매질로 나타냈다.

오빠는 자신이 가장임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어 언제나 침울하고 긴장으로 부자연스럽게 굳어 있었다. 그 긴장으로 억눌려져 자라지 못하는 욕망, 자라지 못하는 슬픔, 분노 따위는 엉뚱한 잔인성이나 폭력의 형태로 나타났다.

때문에 한없이 크고 당당해 보이는 체구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때로 내게 어린애처럼 연약하고 애매해 보였다. 우리를 때릴 때조차 어쩔 줄 모르는 듯 보이기도 했다. 오빠 자신도 이 사실을 깨닫는 듯 걸핏하면 목덜미까지 시뻘겍게 붉혔다.<sup>23)</sup>

그리하여 오빠는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에 맞서기라도 하는 듯 동생들에게 폭력을 분출하게 된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자신의 배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배우처럼 그는 하나의 폭군을 시연하고 있다. 마치 자신이 맡은 역할이 어색하지만 해내야 하는 인물처럼 그는 온몸으로 그의 긴장 상태를 표출하게 된다. 이때 나는 오빠의 폭력을 직접 당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그 현장에 노출되면서 공포의 일상에 잠식된 상태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낮 시간에도 매일 같이 대포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며 불안<sup>24)</sup>한 일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랑눈이는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지만 이는 자신의 현실이 감당할 수 없음에 따른 자포자기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과 같다. 일상이 된 공포와 불안의 상태에서 '심리적 에너지의 흐름이 교란되고 억압'<sup>25)</sup>받게 된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할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포심을 느끼고, 불안한 감정 상태로 수치심의 감정을 받아들리게 된다.

그런데 폭력의 주체인 오빠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수치심을 내면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 그 역시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숙한 소년과 소녀들과 마찬가지로 풍문에 휩싸여 비현실적 미래를 그려보고 현재 상태를 벗어나기를 갈망한다. 중단된 학업에 미련을 갖고 어머니에게 시위하듯 영어책을 읽어대던 오빠 역시 도회지에서 생활하는 서분이를 만난 뒤 미국에서 생활할 수도 있다는 환상을 갖는 것이다. 미국인의 집에서 식모 생활을 하는 서분이는 여느 읍내 처녀들과는 다른 분위기

23) 오정희, 「유년의 딸」, 『유년의 딸』, 문학과 지성사, 1981, 27-28면. 이하 작품 인용 시 페이지만 표기함.

24) 불안은 수치심보다 앞서는 정동이다. 프로이트는 수치심을 어머니와 아이의 이차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근원적 불안으로부터 파생하는 정서로서의 일차적 수치심과 문화와 사회의 진입으로부터 나타나는 이차적 수치심으로 구분한 바 있다. 정락길, 「수치심과 시선-라캉의 수치심에 대한 고찰」, 『인문과학연구』 48,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365-366면 참조.

25) 임흥빈, 앞의 책, 192면.

로 다가온다. 껌, 초콜릿, 향수를 우리에게 전하며 미국인,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동경을 품게 하고 환상이 현실화될 방법을 직접 알려주기도 하는 모습을 보인다.

내가 있는 집, 해리슨 씨 말야. 너 같은 애 여럿 미국 보냈어.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말해줄게. 그 사람들, 너같이 불우하고 의지 강한 애들을 참 좋아해. 어떡허든 도와주려고 애쓴단다. (중략) 서분이는 멋쟁이였다. 밤마다 엉덩이를 흔들고 다니는 읍내 처녀들에 비할 바 아니었다. 집에서든 꼭 끼는 스커트에 환히 살이 비치는 양말을 신고 굽 높은 구두를 신었다. 서분이는 우리에게 껌과 초콜릿도 주고 어머니에게는 낱새 독한 향수를 주었다. (중략) 처음부터 신임을 얻기는 어려워. 일단은 다 도둑놈으로 보려하거든. 처음엔 시험을 한단다. 우선 좋은 날씨군요/행복한 아침입니다/나는 절대로 훔치지 않았습시다/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라는 말만 할 수 있으면 돼.(53-54면)

서분의 말에 따르면 해리슨 씨는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내주는 부유한 사람이다. 불우하지만 강한 의지를 보인다면 현재의 처지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따르라는 수칙을 들어보면 결국 ‘나는 도둑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언표를 행하라는 모양새이다. 이때 나에게 정체성을 수여하는 타자로서의 미국은 주체 자신이 자기동일성을 누리지 못하도록 ‘부적합성’으로 돌려놓는 차이 자체의 의미를 지닌다.<sup>26)</sup> 오빠는 어색한 발음을 부드럽게 수정하려고 반복적으로 노력하고 외위도 발화되는 소리의 내용-‘아임 낫 라이어, 아임 어니스트 보이’-을 통해 결국 동일화될

26) 식민적 주체성의 한 양상인 ‘홍내대기’는 동일화를 통해 내면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체 자신을 모방 대상에 부적합한 자로 생산해내는 주체화 실천이 된다. 거의 같지만 꼭 같지는 않은 주체가 됨으로써 보편성을 교란하는 위장술과도 같다. 김미정, 앞의 글, 153-154면 참조.

수 없는 타자를 그리고 있다. 결국 따라하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타자인 미국에 부적합한 자로 확인하는 과정을 발견할 뿐이다. 좋은 소식을 갖고 돌아오기로 한 서분이기 시일이 지나도 끝내 찾아오지 않으면서 불가능한 꿈이었음을 확인하며 내면의 수치심은 강화될 뿐이다.

외부 대상과 현실에 무감각한 태도<sup>27)</sup>로 일관하며 수치심에 빠져 있는 노랑눈이는 끊임없는 허기와 단 음식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불안 상태에 놓여 있다. 주위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시의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낮 동안 체득한 무서움을 잊기 위해 나는 밤이 되면 음식을 찾는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움직이는 '손과 싸우며 그곳에서 애써 눈을 돌리'지만 몸은 이미 나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이때 나는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나에게 대한 이야기를 엿듣게 된다. 어른들 모르게 행한 나만의 비밀이라 판단했던 식탐과 도벽이 들키게 되면서 더더욱 무서움이 강렬해지는 악순환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내면화된 수치심의 감정은 전쟁이 끝났다는 상징적인 사실, 즉 아버지의 귀환과 함께 폭발하게 된다. 겨울에 피난민들이 하나둘 떠나고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소문이 돌 때도 돌아오지 않던 아버지는 다시 해가 바뀌고 늦여름의 한때가 되어서야 어머니의 간밤에 꾸 이상한 꿈이 실현된 듯 귀환한다. 아버지가 돌아왔으니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교장 선생님의 말에 노랑눈이는 어떤 대꾸도 하지 못한다. 그 말의 내용을 곱씹어 중얼거리보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듯 내 몸은 탁자 위에 놓인 케이크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나는 이러한 광경을 보며 주머니 속의 케이크를 꺼내 베어물었다. 그

27) 수치심의 상태에 주체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는 유약함을 드러내는 지표로 얼굴을 찡그리거나, 붉히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보여준다. 노랑눈이의 무감각한 태도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빚어진 모습으로 이해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역, 「슬픔과 우울증」, 『무의식에 관하여』, 열린책들, 1997, 254면 참조.

것을 다 먹고 냈을 때 갑자기 욕지기가 치밀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꾸역꾸역 토해냈다. 단 케이크는 한없이 한없이 목을 타고 넘어왔다. 까닭 모를 서러움으로 눈물이 자꾸자꾸 흘러내렸다.

나는 다리 사이에 머리를 박고 구역질을 하며 똥통 속을 들여다보았다.

어두운 똥통 속으로 어디선가 한 줄기 햇빛이 스며들고 눈물이 어려 어롱어롱 퍼져 보이는 눈길에 부영게 끓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무엇인가 빛 속에서 소리치며 일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65면)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비현실감을 체득하기 위해서 나는 끝내 구역질을 하게 된다. 이때 구역질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동안 노랑눈이는 몰래 불안과 무서움을 삼키듯 먹는 행위로 심리적 결핍 상태, 즉 자아와 관련된 상실감을 쌓아왔었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선생님의 말에도 습관처럼 단 케이크에 손이 가버리며 여전히 불안한 내면 상태를 보인 것이다. 참을 수 없는 욕지기가 치밀어 오르며 결국 구역질로 삼켜 왔던 서러움이 폭발한다. 전쟁으로 인해 1년여간 겪은 불안은 이제 나의 내부에서 천천히 ‘끓어오르는’ 그 무언가로 감지된다. 불안은 나를 위협하는 외부의 대상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협은 오히려 내재적이며, 자기 자신과의 일치를 가로막는 한계와의 조우<sup>28)</sup>로 인해 불안이 초래하는 것이다. 이처럼 불안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과정으로서 필요한 감정이면서도 온전한 나를 인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정동이기도 하다. 아버지가 귀환했다는 실제적 현실이 펼쳐지면서 대상화할 수 없던 불안이 해소되고 내 안에서 서서히 ‘끓어오르는’ 그 무엇으로 감지되던 억압되었던 수치심의 감정 또한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28) 조운 콕제에 따르면 우리는 섬뜩한 경험들을 할 때 두려움보다 불안을 느끼게 된다. 두려움은 대상을 명확히 갖는다. 불안은 외부 세계나 대상을 통해 위협으로 감지되기보다는 우리 자신과의 일치를 가로막는 한계와의 조우에 의해 초래되는 감정이다. 조운 콕제, 앞의 책, 175면 참조.

## 5. 수치심으로 드러난 주체의 의의

이상으로 한국 여성 소설에 나타난 수치심의 정동을 분석하여 주체형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피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전후 여성작가들에서 나타난 수치심과 주체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작가의 자의식이 크게 반영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사회·문화적 환경이 절대적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던 전후의 근대화 과정은 그 자체로서 타자의 역할을 하며 주체 형성에 의식적·무의식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해방촌 가는 길」에서 응시로부터 수치심이 발생하게 되고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겪는 여성 인물 기애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응시는 실체적 대상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이 아니며 주체 스스로 가정하여 느끼는 시선임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 장씨와 해방촌 사람들로부터 기애는 항상 응시를 느끼며 수치심과 굴욕감의 감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즉 수치심이 주체의 자리를 만들고, 확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애는 이와 같은 감정을 회피하고자 탈주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후 새롭게 형성되는 가치관과 미군 문화의 영향은 전근대적 사고방식과 충돌하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효과를 자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무』의 이경 역시 생활인으로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타자로 상징되는 '아메리카'와 점점을 맺지 못하는 불연속성의 내면 상황에 놓여 있는 인물이다. 환하고 부유한 세계로 인식되는 미국을 모방한 서울의 도시풍경은 눈을 현혹하지만 나는 절대적으로 흡수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상적으로 재현되는 환등상 거리 곳곳에 전쟁으로 인한 폐허가 공존하면서 현재의 자리로 다시금 되돌리는 효과를 자아내게 된다. 이때 발생된 수치심은 욕망하고 꿈꾸는 이상적 삶을 그리는 자신에게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기

체가 된다. 즉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한정된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의미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한정된 자기를 인지해야만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과거를 반추하는 과정에서 겪는 수치심은 이경의 주체로의 이동을 예감하게 한다.

어린아이가 겪는 전쟁의 일상이 공포와 불안으로 반복되면서 수치심이 서서히 내면화되는 과정을 다룬 「유년의 뜰」은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육체에 주목할 수 있었다. 결핍된 현실에 대한 불만은 해소되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아무것도 변화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상태를 받아들여게 만든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반동 작용으로 노랑눈이는 도벽과 식탐이라는 기이한 행동을 멈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데 이는 외부 현실 세계에 무감각한 태도로 대응하면서 나타난다. 수치심에 빠진 주체가 자신의 유약함의 지표로서 신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처럼 노랑눈이 역시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손과 식욕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앞의 두 작품과 마찬가지로 「유년의 뜰」 역시 타자와의 거리감을 통해 수치심을 내면화하는 인물로서 오빠를 살펴볼 수 있었다. 전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미국행 실현이 좌절되면서 오히려 타자와의 불합치성을 확인하게 된다. 동경의 대상으로서의 타자는 주체가 자신의 자기동일성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차이를 벌여놓게 되면서 수치심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상의 텍스트들을 통해 전후의 한국 사회는 근대성으로 명명할 수 있는 타자와의 연속성 내지 단절을 반복적으로 겪으며 주체가 수치심의 감정을 내면화하는 단계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수치의 감정은 부정적으로 배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를 정립하는데 필수적인 전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자와의 차이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그 과정에서 수치심이 형성되며 한정된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주체가 탄생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강신재, 박완서, 오정희는 대표작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수치심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어 창작의 원동력



으로 삼은 작가들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 주체성을 드러내는 지표로서의 수치심은 정확히 그 대상을 지명하기 어려운 감정적 출현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인간은 감정을 통해서 사유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열린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보다 다양한 감정적 정동들에 대한 접근과 이해는 후속의 연구로 남기며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강신재, 「해방촌 가는 길」, 김은하 엮음, 『강신재 소설 선집』, 현대문학, 2013.  
박완서, 『나목』, 세계사, 2012.  
오정희, 「유년의 뜰」, 『유년의 뜰』, 문학과 지성사, 1981.

2. 논문 및 단행본

- 김미정, 「수치(shame)와 근대」, 『사회와 이론』 통권 제21-1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12, 141-189면.  
김민옥, 「누스바움의 감정철학으로 바라본 오정희의 「유년의 뜰」」, 『영주어문학회지』 40권, 영주어문학회, 2018, 199-232면.  
김윤식·김우종 외 34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89.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김윤정, 「박완서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 혐오 연구-『살아 있는 날의 시작』과 「친절한 복희씨」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82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9, 235-261면.  
나보령, 「허물어진 ‘문 안’: 박완서의 『나목』을 통해 본 한국전쟁과 서울의 공간적 재편」,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9권4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85-113면.  
박제철, 「상품화된 이미지와 이미지적 세계 ‘사이’에서-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의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 『비교문학』 제69집, 한국비교문학회, 2016, 105-138면.  
서영채, 「이청준의 소설에 나타난 가난과 부끄러움의 윤리성-단편 「키 작은 자유인」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2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6, 255-284면.  
신수정, 「박완서 소설과 전서 여성 가장의 미군 PX 경험」,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7집2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51-81면.  
우찬제 외,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2007.  
우현주, 「박완서 전쟁 체험 소설의 반복과 차이」, 『여성문학연구』 제4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184-224면.  
임홍빈, 『수치심과 죄책감-감정론의 한 시도』, 바다출판사, 2013.  
정락길, 「수치심과 시선-라캉의 수치심에 대한 고찰」, 『인문과학연구』 48,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357-382면.

- 다ريان 리더, 박소현 역, 『모나리자 훔치기』, 새물결, 2010.
- R.M.릴케, 구기성 옮김, 『릴케 시선』, 을유문화사, 1995.
- 자크 라캉, 자크 알랭 밀레 편, 맹정현·이수련 옮김, 『자크 라캉 세미나11-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개념』, 새물결, 2008.
- 장 클로드 볼로뉴, 전해정 옮김, 『수치심의 역사』, 에디터, 2008.
- 조운 콕젝, 김소연 외 옮김, 『여자가 없다고 상상해봐-윤리와 승화』, 도서출판b, 2015.
-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역, 『무의식에 관하여』, 열린책들, 1997.
- 한스 페터 뒤르, 차경아 옮김, 『나체와 수치의 역사』, 까치글방, 1998.

<Abstract>

## A Study on the Aspect of ‘Shame’ and Subject Shown in Korean Women Novels

Kim, se-n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meaning of subject in Korean literature by analyzing ‘shame’ shown in Korean women novels.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at the self-consciousness of female authors who spent their childhood and adulthood in the Korean War was composing subjecthood commonly based on shame. This study aims to more delicately examine the general background in which the Korean War is closely related to the formation of subjecthood, and also to examine the expression of shame and its various aspects.

After the war, the Korean society regarding the West as others created the deficiency of subject or a sense of inferiority, and the aspects of shame expressed at that time were working as an internalized element in the composition of subject. Repetitively experiencing the continuity or severance with others of the West that could be called modernity, a subject is unconsciously internalizing the feeling of shame. The expression of shame could be approached as an opportunity to overcome such limited self without simply viewing it negatively, and it could be even understood as a concept with the possibility of transformation and sublimation.

The subject’s shame shown in the works by Kang Shin-Jae, Park Wan-Seo, and Oh Jeong-Hee is not only a social and others-dependent

feeling, but also understood as an object of self-control located in the context of emotional communication. The female characters in the postwar period are continuously questioning about their own identity in the middle of life directly connected to the issue of survival, and the shame is working as a major chance at that them. They sometimes show the disruptive attitude like longing for or rejecting others, or they cannot handle their own shame, so it is transferred to fear and anxiety. Also, the female character acting like wearing a mask not to show shame with disguised attitude, shows the correlation between formation of subjecthood and shame. In summary, the shame is not an emotion that could be limited to individual's innermost feeling, but an object that could be collectively drawn in sociocultural and historical environment. In the modernization process after the war, the otherization process derived from others such as the West and America was proceeded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and at that time, a feeling of shame had huge effects on the composition of subject.

Key words: Shame, the Korean War, Subject, Identity, see, gaze, Fear and Anxiety

투 고 일: 2022년 11월 25일

심 사 일: 2022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16일

수정마감일: 2022년 12월 26일